

2013
07

이탈의 주요뉴스
성범죄 보도로 인한
2차 피해 방지책 토론회

인터뷰
장명국 내일신문 대표이사

언론 사람

제157호



언론중재위원회

Contents

03 이달의 주요뉴스

성범죄 보도로 인한
2차 피해 방지책 토론회
언론중재위원회,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과 작년에 이어 두번째 공동 개최

04 인터뷰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일하는 좋은 분위기와
한차원 높은 경영철학이 있어야 경쟁력도 있어
- 장명국(내일신문 대표이사)

06 위원동정

07 위원동정, 위원회 소식

08 조정후기

상식과 편견 사이

09 신 동의보감

여름 식중독 제대로 알고 다스리기

10 위원단상

침묵이라는 언어

11 달라진 法 이야기

‘비친고죄’ ‘남성강간’ ‘유사강간’, 개정 형법의 세 개의 키워드

12 마이 힐링푸드 테라피

햄버거, 그 베어 무는 즐거움에 관하여

13 인문학 산책

아킬레우스를 올린 트로이 왕 프리아모스의 부성에

14 조정중재사례 소개 및 독자마당

언론 사람 | 2013. 07

발행인 권 성 편집인 오광건 발행일 2013년 7월 1일 등록 2009년 12월 7일 서울중. 라00325
발행처 언론중재위원회(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빌딩 15층) TEL 02-397-3114 FAX 02-397-3069
홈페이지 www.pac.or.kr 편집 (주)잉카커뮤니케이션즈
※ 본지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 저작권법에 따라 본지 기사의 무단 복제와 전재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피해 구제 상담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조정·중재신청과 법적 절차를 포함한
종합적 피해구제 방안을
무료로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언론분쟁의 조정·중재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가 정정·반론·추후보도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조정·중재를 통해
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시정권고

언론보도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법익
침해사항을 식악하여 필요한 경우 언론사에
서면으로 시정을 권고합니다.



선거기사 심의

공직선거법에 따라 각종 선거가 실시될 때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에 보도된 선거기사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합니다.



ADR 교육과정 및 언론피해 예방 및 구제교육

조정·중재를 비롯한 소송 이외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에 관한 전문교육과
언론피해예방 및 구제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보도로 인한 2차 피해 방지책 토론회

언론중재위원회,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과 작년에 이어 두번째 공동 개최

● 언론중재위원회는 6월 20일 서울대학교 근대법학교육 100주년 기념관 주산홀에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원장 정상조, 이하 ‘로스쿨’)과 공동으로 “성범죄 보도의 문제점 및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법적 쟁점”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총 2개 세션으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실제 조정신청된 사건을 바탕으로 주요 법적 쟁점에 대해 위원회 실무자와 서울대 로스쿨 학생 간의 찬반토론 형식으로 진행됐다.

● 1세션에서는 성범죄 보도와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 토론이 진행됐다. 해당 보도에서는 피해자 이름을 가명으로 처리했는데 공교롭게도 피해자가 속해있는 단체에 그 가명을 가진 실명자가 있었고 해당 가명자가 언론 조정 신청을 한 사안이 었다. 토론자들은 가명과 이름이 같은 사람이 해당 보도에서 언급된 성추행 피해자로 오인될 수 있어 명예훼손 및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언론사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을 주로 제시했다. 그러나 보도에서 ‘가명’임을 명시했기 때문에 이로 인한 피해는 없다고 본다며 언론사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반대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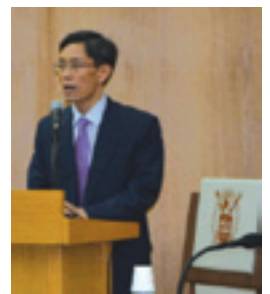
● 2세션에서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하지 않은 채, 양 당사자가 결정과는 다르게 별도로 이면 합의를 한 사안에 대해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자들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과 이면합의 모두 유효하기 때문에 집행 및 기관력 등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 중재부의 판단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의견과 당사자의 합의가 중요하다는 의견 등도 제시됐다.

● 권 성 위원장은 토론회 총평에서 “실제 언론보도 분쟁 사건에 대해 법적 쟁점을 분석하고 토론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언론보도와 인격권에 관한 학문적 관점을 조명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언론의 자유와 책임에 관한 주제는 일도양단식의 문제해결이 아니라 ‘중용’의 가르침을 가치에 둔다면 적절한 분쟁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로스쿨생, 교수, 언론인 등 80여 명이 참석해 활발한 질의응답을 주고받았다.



권 성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정상조 서울대 로스쿨 원장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일하는 좋은 분위기와 한차원 높은 경영철학이 있어야 경쟁력도 있어



장명국(내일신문 대표이사)

- 석탑노동연구원 원장
- (주)내일신문 운영위원장
- (주)YTN 대표이사
- 백담사 만해사상실천선양회 수석대표
- 자연보호중앙협의회 회장
-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
- (주)내일신문 발행인 겸 대표이사(현)



노동운동전문가에서 성공한 언론사 CEO. 내일신문 창간 후 단시일 내에 흑자 경영을 이루고, 파산상태에 몰렸던 YTN을 회생시킨 언론사 경영의 신화를 이룬 장명국 내일신문 대표이사를 만났다.

● ● 1984년도 석탑노동상담소(후에 석탑노동연구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을 상대로 노동법과 산업재해 및 직업병 상담, 노동조합 활동 교육을 하는 등 노동문제 전문가로 이 분야에서 손꼽히는 전문가로 알려졌습니다. 노동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습니까?

1981년도에 <노동법 해설>이란 책을 썼는데 많은 근로자들이 찾아와 상담을 하게되었습니다. 저는 1966년 서울대 경제학과에 입학했는데 당시 우리사회는 한창 산업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들이 안하는 그러나 앞으로 유망한 분야라고 생각되는 노동경제학을 전공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1973년 제가 군대를 제대한 후 미국유학을 가기 전 무언가 민주화운동에 기여를 조금이라도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1973년 9월말 유인물을 뿌리게 되었습니다. 그 후 인생의 방향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유학은 물 건너갔고 취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노동 경제학과 노동문제에는 계속 관심을 가졌습니다. 무엇인가 사회에 기여해야 되겠다는 소박한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근로자에게 한국경제에 대해 강의를 했는데 근로자들은 경제 질문보다는 체불임금이나 산재 등의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는 답을 못했지만 이것저것 찾아보고 답할 수밖에 없었고 당시 노동법 책은 모두 한문으로 되어있고 학설중심이어서 실무에서는 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법원 판례나 노동부 고시 등을 중심으로 노동법해설을 썼는데 이 책이 엄청나게 많이 팔렸고 많은 근로자들이 찾아오면서 저는 더 노동문제에 깊이 관계하게 되었습니다.

● ● 저서 '밥 일 꿈'에 보면 두 차례 수감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셨다고 하셨는데,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인연이 있었는지요.

처음 1973년 유인물사건으로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때 데모를 배후 주동했다하여 잡혀온 장기표 대표를 만났고 또 다른 유인물사건으로 들어온 이재오 의원도 처음 만났습니다.

1990년 구속되었을 때는 서울구치소에 시국사범이 100여 명이 넘게 있었는데 김근태 의원 등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사회에 민주화운동의 중심 인물들

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 신문사 기자도 있습니다. 그 때 대법원 주심 판사는 이회창 대법관이었습니다. 1년 반 실형을 받고 다시 1993년도에 또 구속되었습니다. 그때 항소심 재판관님이 지금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님이신 권 성 판사님이셨습니다. 제3자 개입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려주셔서 마음 속으로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 1993년 내일신문 창간 후 단기간에 흑자 경영을 이뤄내 시고, 1999년 IMF 위기에도 20% 배당을 할 정도로 건실하게 신문을 운영하셨는데, 경영철학이나 경영 노하우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창업이나 어려운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사원주주형태로 소유구조를 만들어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일하는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야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소유구조를 만들기 어렵다 하더라도 기존의 방식과 철학으로는 세계화된 시장경제 속에서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해나가기 어렵다고 봅니다. 이제까지 경영방식보다 한 차원 높은 경영철학이 요구됩니다. 저는 이것을 4차원 경영철학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2차원은 평면적, 3차원은 공간적 이라면 4차원은 시공간입니다. 공간에 탄력적 시간이 달라붙어야 하는 즉, 항상 시간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장 중시하는 경영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세일즈는 물건을 중심으로 하는 3차원 개념이라면 마케팅은 마켓(Market) 즉 시장에 ing 라고 하는 현재진행형 시간이 결합된 4차원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경제에서는 마케팅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3차원 개념은 모든 사물을 질과 양으로 보는 변증법적 개념인데 반해 4차원 개념은 질과 양뿐만 아니라 장(場, field)을 중시합니다. 장이란 개념은 분위기입니다. 시스템을 분위기 좋게 만드는 것이 바로 4차원 경영입니다.

● ● 내일신문은 중앙과 지역밀착형 매체를 동시에 발간하고, 취재와 편집이 통일된 소위 '원맨시스템'을 최초로 도입하는 등 다른 언론사와 차별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 배경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내일신문만의 또다른 특별함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원맨시스템은 1980대 미국에서 처음 만들어졌다고 알려져있고 90년대 들어 미국 신문사들에서는 일반화 되었습니다. 제가 1996년 주간내일신문을 운영할 당시 중앙일보사에 후배들을 만나러 갔다가 이 원맨시스템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신문사기자들은 내근 편집부 기자보다 외근 취재부 기사를 훨씬 선

호합니다. 싫은 일을 하게 하면 직장분위기가 나빠집니다. 그래서 힘이 들더라도 원맨시스템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후발 업체이므로 당위적 측면에서는 쉽게 동의를 했지만 편집훈련을 해야 하므로 불평도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런 문제를 투표를 통해 결정했습니다. 처음에는 과반수가 넘었지만 한 달 지나 다시 투표하니 3분의 2가 넘었고 그 다음번 투표 때는 만장일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후발 업체일 뿐만 아니라 자본금도 아주 작고 누구도 돈을 빌려주지 않는 풍전등화와 같은 힘없는 존재였습니다. 아마 그것이 다른 언론사보다 먼저 좋은 시스템이나 기술을 받아들이는 배경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갈등을 없애고 통일장을 만드는 것이 4차원 경영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투표뿐만 아니라 경영지표는 물론, 월급도 모두 공개하는 완전 투명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 ● 1998년 IMF 외환위기 때 파산상태에 몰렸던 YTN 사장으로 선임 되셨는데, 당시 경영상태를 볼 때 회복이 어려울 것이라는 주변의 우려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보란 듯이 수개월 안에 YTN을 정상가동하도록 하셨습니다. YTN 사장으로 재임하셨을 때 YTN을 정상화하는 데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998년 9월 YTN에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첫 출근했는데, 당시 YTN은 은행 빚이 너무 많았고 금융위기까지 겹쳐 빨리 회생하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첫 출근 때 노동조합에서 '낙하산 인사를 환영합니다'는 대자보를 붙였는데, 취임식에서 "저는 낙하산으로 왔으니 공수특전단입니다. 그래서 세게 하고 빨리 끝내고 빨리 가겠습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급여를 많게는 70% 반납하도록 하고 경비 일체를 반으로 줄이도록 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직원들의 급여를 삭감하는 것이었습니다. 6개월 간 월급이 체납되었던 직원들은 반발이 심했습니다. 하지만 경비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급여를 줄이지 않으면 흑자가 날 수 없다고 노조간부들을 설득하고 저 스스로 월급도 판공비도 일체 받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회생하는 데 일년 이상 걸릴 거라고 예상했는데 의외로 3개월만에 경영이 정상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취임 후 10개월 뒤 사의를 표명하고 퇴임했습니다.

● ● 종이신문 산업이 침체기를 겪고 있습니다. 대표님은 e-paper가 신문산업의 미래 비전이라고 소개하신 바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방송 뿐 아니라 인터넷이 나오고 포털이 활성화되면서 종이신문은

시양산업이 되고 있습니다. 대신 전자신문 e-paper의 시대가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분간 5~10년간은 종이신문과 e-paper가 병존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e-paper가 유료화 되어야 신문산업이 다시 활성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신문협회의 세미나에서 수년간 e-paper 유료화가 논의되었는데 최근에는 e-paper 유료화는 신문사들의 당위라고 결론지었다고 합니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즈와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은 e-paper의 유료화를 성공시켰고 미국 뉴욕타임즈는 성공해가고 있으며 미국에서만 4백개 일간지가 e-paper 유료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 ● 대표님은 1면 톱기사로 정정보도를 하는 등 오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분쟁의 조정·중재기구로서의 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신문은 대표적인 신뢰상품입니다. 신뢰를 먹고 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보가 나오면 당연히 정정보도를 해야합니다. 1면에서 오보가 나오면 가능하면 1면에 정정보도를 내야하는 것이 신뢰를 높이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언론은 또한 언론자유가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언론자유와 오보와의 관계는 매우 복잡하게 되어있습니다. 한쪽은 오보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한쪽은 오보라고 주장하는 사례가 많다고 봅니다. 이때 건전한 상식을 판단 기준으로 삼고 양측의 주장을 조정할 수 있는 언론중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법원으로 가기 전 가능한 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또한 상대방도 인정할 수 있는 자율적 기구인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분쟁이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당연히 언론중재위원회의 위상은 높아져야 하고 또 기구와 역할도 커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 인삼 수출업, 기술학원 운영, 노동문제전문가, 내일신문 사장, YTN사장, 한국녹색문화재단 이사장 등 다양한 직업을 경험하며 자신의 한계에 계속 도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가장 뿌듯했던 순간을 꼽아본다면?

곳간에서 인심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일간지 창간 첫해에 모두가 적자난다고 생각했고 많은 사람들이 곧 망할 거라고 했지만, 흑자가 났던 일과 YTN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3개월 만에 흑자를 이뤘던 일에서 가장 보람을 찾을 수 있습니다.

• 진행 | 손정배 (홍보팀장) • 정리 및 사진 | 최승민

위원동정

COMMISSIONERS

주파수 정책 합리성 제고 심포지엄 진행 말아



유익선 위원(서울제2중재부, 이화여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은 6월 12일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방송통신 관련 세 학회가 공동 개최한 '주파수 정책 합리성 제고를 위한 방송통신 3학회 공동 심포지엄' 두번째 세션의 사회를 맡아 진행했다. 방송통신 세 학회는 한국방송학회, 정보통신정책학회, 한국통신학회이다.

'1975' 발간에 공저자로 참여



김세은 위원(강원중재부, 강원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은 1975년 강제 해직된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의 이아기를 다룬 '1975, 출간에 공저자로 참여했다. 5월에 발간된 이 책은 2012년 1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미디어오늘'에 연재된 '동아투위 유신시절을 말한다'를 재편집하여 엮어낸 책이다. 김세은 위원은 '동아투위 위원들의 생애를 연구하다' 제하의 장에서 동아투위 당사자들과 인터뷰 한 내용을 정리해 저술했다.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 위촉



한은경 위원(서울제2중재부, 성균관대 언론정보 대학원장)은 6월 10일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23조에 따라 구성되는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법정위원회로, 지역방송과 중소 라디오방송사에 대한 지원 실적 평가, 방송광고 매출배분 분배 조정, 방송광고 균형발전 기본계획 등을 심의해 방송통신위원회에 건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영남의병 학술대회 주제 발표



남부회 위원(경남중재부, 창원대 사학과 겸임교수)은 5월 30일 의령군민회관에서 열린 제3회 의병의 날 기념 영남의병학술대회에서 '의령지역 의병과 영남'을 주제로 연구발표를 했다. 이날 발표에서 남 위원은 홍의장군 객재우의 의병 봉기가 사실상 봉괴한 조선왕조를 재정비해 나라를 구했다고 밝혔다. 또한 의령지역 의병의 주요 전적과 활약상을 고찰하고 의병의 역사적 의의를 3가지 측면에서 정의했다.

COMMISSIONERS

제7회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DIMF) 막 올라



장익현 위원(대구중재부,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 이사장)은 6월 15일 대구 두류공원 야외음악당에서 열린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DIMF, 이하 댐프) 전야제 행사 'K-뮤지컬 콘서트'에서 댐프 개막을 알렸다.

제7회째를 맞는 댐프는 6월 17일 개막작 '선피쉬'(Sunfish)를 시작으로 7월 8일까지 24개 작품이 대구시내 주요 공연장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장 위원은 '미라클 뮤지컬, 미라클 댐프'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댐프가 지역 행사에서 벗어나 한국 공연산업에 기여하는 국제적인 축제로 거듭나도록 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장 위원은 국내 창작 뮤지컬을 제작해 해외 진출에도 앞장설 계획이며 미래 뮤지컬계를 이끌어갈 차세대 스타 발굴을 위한 대학생 뮤지컬 페스티벌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한국 뮤지컬 시장의 저변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K-뮤지컬 콘서트'에는 대구중재부 김정숙 위원과 윤덕우 위원이 참석해 자리를 함께했다.



위원회 소식

NEWS

통일교육원 미래지도자 과정 수강생 교육



위원회는 6월 12일 중앙부처 고위공무원과 공공기관 고위 임원 및 현역 군인으로 구성된 통일교육원 미래지도자 과정 수강생 50명을 대상으로 기관 위탁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언론환경

변화와 Social Media 커뮤니케이션 전략', '언론대응전략 및 언론피해구제', '전략적 이슈관리와 커뮤니케이션'을 주제로 한 강의가 이뤄졌다. 이번 교육은 지난 2월 위원회와 통일교육원 간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양 기관 교육사업 협력 차원에서 실시됐다.

성균관대 사회과학대학과 MOU 체결



위원회는 6월 12일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대학(학장 김정택)과 갈등조정을 위한 수사학 개발과 학문적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위원회와 성균관대 사회과학대학 간 공동 연구 및 인력 교류, 학술 협력 등 다양한 공동 협력 사업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언론중재위원회, 직원 집체연수 실시



위원회는 6월 21일과 22일 양일간 춘천시에 소재한 엘리시안 강촌 리조트에서 사무처 전체 직원이 참가하는 직원 집체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에서는 김기옥 모커리 한방병원 원장의 건강 특강과 춘천소방서 이원표 응급구조사의 응급처치법 실습 및 성희롱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체육활동을 통해 화합과 친목을 다졌으며,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검봉산 국민의 숲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했다.

사무처 인사

- 직원해외실무연수: 심리본부 기사심의팀 장성원(2013. 7. 2자) [미국 페퍼다인대학교]
- 파견: 심리본부 조사팀장 강현석(2013. 7. 8.자) [경찰대 치안정책교육과정]

상식과 편견 사이

김 주 용 조사팀 차장
서울제2중재부 조사관



상식은 힘이 세다. 상식이란 사람들이 ‘보통’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지식을 의미한다. 상식에 반하는 주장은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그런데 이 ‘보통’이 문제다. 그가 속한 집단의 성격이나 세대 혹은 그가 살아온 환경이나 경험에 따라 그 ‘보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가 양극화되고 분화될수록, 그 사회의 정보격차가 심화될수록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상식의 범위는 줄어든다. 그래서 나의 ‘상식’이 그에게 ‘전문지식’이 되기도 하고, 그의 ‘상식’이 내게는 ‘몰상식’이 되기도 한다. 오늘도 상담창구에서는 조정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비상식적인’ 상담원의 답변에 분통을 터뜨리는 민원인들이 줄을 선다.

서로 다른 상식을 가진 이들이 서로에게 다가서려는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때 상식은 배타성을 띠게 된다. 상식이 ‘편견’ 혹은 ‘아집’으로 전락하는 순간이다. 우리사회에 만연한 ‘사법불신’이나 ‘의료불신’은 이러한 소통노력이 턱없이 부족함을 드러낸다.

‘산양분유의 진실’ 또한 그러했다. 산양분유 속에는 산양유 외에도 영양 등을 고려하여 상당량의 유당이 들어가는데 이 유당의 성분이 문제가 된 것이다. 국내에서 산양분유 대부분을 제조하는 신청인 회사의 분유 속 유당은 상당부분 산양이 아닌 젖소에서 나온 것이었다. 언론사는 산양분유라면 유성분만큼은 100% 산양유일 것이라는 게 소비자들의 ‘상식’이라는 점을 파고들었다. 인터뷰에 응한 소비자들은 산양분유에 젖소유당이 들어간다는 ‘비상식적인’ 사실에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여기에 ‘업계관계자’로 소개된 경쟁업체 직원의 인터뷰까지 더해져 ‘산양분유라면 100% 산양유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배타적 확신이 생겨났다. 그 결과 이에 미달하는 산양분유는 모두 ‘거짓’이며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이 되었다.

신청인 측 이야기는 달랐다. 모든 분유제조의 핵심은 모유에 가깝게 만드는 것으로 이는 업계의 ‘상식’이며, 유당 역시 그러한 점을 고려하여 설계한 것으로 성분표기법을 포함한 관련 제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바 그럼에도 ‘소비자 기만’ 운운하는 것은 과장·왜곡보도라는 것이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 제2중재부는 먼저 이 보도가 소비자들의 권익과 알권리를 제고하고, 성분표기 등 관련 제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 제작되었음을 인정하였다. 중재부는 그러나 신청인 또한 산양분유 속 산양유 성분 함량을 속이거나, 관련표기를 법적으로든 의도적으로든 누락한 사실이 없고, ‘산양유 100%’라고 광고한 것은 산양분유가 아니라 ‘산양 유아식’에 관한 것임이 확인되었으므로 피신청인이 반론과 함께 일부 정정보도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중재부의 설득과 문안에 대한 몇 차례의 밀고 당기는 과정을 거쳐 어렵사리 합의에 도달했다. 신청인은 제목에서 일부 표현을 양보하는 대신 피신청인은 반론을 보다 넓게 수용하고 정정내용을 포함하기로 했다. 나아가 조정대상이 된 기사도 더 이상 게시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

중재부의 심리는 끝났지만 조사관으로서 여전히 남는 의문. 산양분유라면 100% 산양유로만 되어 있을 것이라는 소비자들의 생각은 상식이었을까? 편견이었을까?





여름 식중독 제대로 알고 다스리기



조명업 교수
인하대 외과

설사는 하루에 세 번 이상 묽은 변이나 물로 변이 나오는 증상을 뜻합니다. 설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흔한 원인은 장관염으로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감염으로 인한 설사가 있습니다. 계절적으로 여름에 많이 발생하는 설사의 원인과 증상, 치료 및 예방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설사의 다양한 원인

설사는 발생하는 기전에 따라서 삼투성 설사, 분비성 설사, 염증성 설사, 운동이상 설사 등으로 분류합니다. **삼투성 설사**는 섭취한 음식이 소장에서 흡수되지 않아 장이 수분을 끌어들여 설사를 유발되는 경우입니다. 젓당 분해효소가 없어 우유를 마시면 설사하는 경우와 마그네슘을 포함한 제산제, 건강보조식품 등을 복용할 때 발생하는 설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분비성 설사**는 장 점막의 구조적 손상 없이 세균성 독소 등에 의해 장내 수분이 과다하게 분비되는 설사로, 콜레라 독소에 의한 설사가 대표적입니다. **염증성 설사**는 크론병, 궤양성대장염 등의 염증성 장 질환이나 허혈성장염 등에 의해 장점막에 염증 또는 궤양 등이 생겨 유발되는 설사입니다. 장점막에 염증이 있으면 흡수는 떨어지고 분비는 증가하며 장관 운동 항진 등으로 설사를 일으킵니다. **운동이상 설사**는 장 운동 변화로 수분이 충분히 흡수되지 않아 발생하는 설사인데, 원인으로는 과민성 장증후군 등이 있습니다.

설사는 지속되는 시간에 따라 급성설사와 만성설사로 나뉩니다. **급성설사**는 갑자기 발병하여 3~10일 이내에 회복되며 세균, 바이러스, 기생충 등에 의한 감염성 설사가 대부분 급성 설사의 원인입니다. 비감염성 원인으로는 과식이나 약제, 버섯류나 비소 같은 독소, 카페인 등이 있습니다. **만성설사**는 수주에서 수개월까지 지속되는 설사를 이르는데, 삼투성 설사, 분비성 설사, 염증성 설사, 운동이상 설사 등이 있습니다. 만성설사의 가장 흔한 원인은 과민성 장증후군입니다. 약물 부작용에 의해 만성설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약제를 중단하거나 교체하면 설사가 완쾌될 수 있습니다. 설사가 이유 없이 4주 이상 지속되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 진찰 후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식중독 원인균 체온범위인 36~37℃에서 잘 증식

설사의 가장 흔한 원인은 로타바이러스에 의한 바이러스성 장염으로 5세 이하 아동에 나타나는 설사의 40%가 이에 해당합니다. 여행 중 나타나는 설사는 대부분 세균 감염에 의합니다. 이외에도 버섯 중독과 같이 독소에 의하여 발생합니다. 특히 높은 기온과 습한 날씨가 많은 여름은 미생물이 증식하기 좋은 환경이라, 급성 감염성 설사나 식중독에 인한 설사가 발병할 수 있게 됩니다.

더운 날씨에 찬 음식을 자주 찾는 것도 여름철 설사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살모넬라균, 황색포도상구균 등 식중독 원인이 되는 세균은 체온범위인 36~37℃에서 잘 증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름철엔 조금만 방심해도 식중독에 걸릴 수 있으니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여름철 설사는 이와 같이 세균, 바이러스 등이 원인인 경우가 많으므로 항상 청결해야 합니다. 손씻기의 생활화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음식을 조리할 때는 물론이고 음식을 먹기 전에는 손을 씻어야 합니다. 음식재료는 필요한 만큼만 구입해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먹습니다. 보관이 필요하면 6℃ 이하로 냉장보관하며, 조리 후에는 가능한 한 바로 섭취합니다. 여름철 여행지에서는 상온에 오래 방치된 음식이나 날것, 샐러드, 껍질을 벗기지 않은 과일 등은 되도록 피하여야 합니다. 물은 반드시 끓여 먹거나 안전한 생수를 먹도록 합니다. 답다고 하여 음료수 등에 얼음을 첨가하여 마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도 위생처리가 잘 된 얼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야외활동이 많은 여름철에 먹거리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고, 개인위생을 철저히 한다면 올 여름도 식중독과 설사에 대한 걱정이 없는 건강하고 즐거운 여름이 될 것입니다.

금식하기 보다는 끓인 보리차나 이온음료 등으로 수분 공급해야

급성 감염성설사의 치료는 안정과 수분공급이 중요합니다. 완전한 금식보다 끓인 보리차나 이온음료 등으로 수분을 공급하면 대개 호전됩니다. 급성설사와 복통이 24시간 이상 지속되면 병원에 가야 합니다. 특히 탈수가 심하거나 영아나 노인의 경우 정맥주사로 수분과 전해질을 공급해야 합니다. 대부분 항생제는 필요 없으나 이질, 콜레라, 기생충 감염 등에 의한 설사, 여행자 설사, 면역기능 저하로 나타나는 설사 등에는 원인에 따라 항생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침묵 이라는 언어

예수는 부활하고 제자들 앞에 나타났다. 그 예수는 성모 마리아를 언제 찾아갔을까?

부활절 새벽 무덤은 이미 비어 있었다. 예수는 그 시간 더 이상은 무덤에 있는 주검이 아니었다. 성모마리아는 그 아침, 식사를 준비해야 하는 새벽, 부엌으로 나가 아마 식구들의 식탁을 보면서 예수를 그리고 있었을 것이다. 바로 그 순간 예수는 늘 앉던 자리에 와 앉았다. 감사와 그리움을 가득 담은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어머니는 “오, 예수!” 한마디를 발음했다. 그리고 둘은 앉은 채로, 선 채로 서로를 응시했다. 잠시 후 예수는 일어서면서, “나는 멀지 않아 하늘 아버지께로 올라갑니다.”라고 했다. 그리고는 눈앞에서 떠났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 앉으면서, “주님!”하고 외쳤다. 그때 어머니 마리아가 침묵 속에서 느꼈던 희열과 위로. 그 둘은 단 두 마디로 몇 세기를 이어 내려오는 그 모든 메시지를 소통했을 것 같다.

천주교에서 신자들이 일상생활을 떠나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 속에 머무르는 행위를 피정이라고 한다. 나는 운 좋게도 30일 피정(영신수련)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시작 당일 우리는 2시부터 4시 사이에 도착하기로 되어 있었다. 4시 10분전에 도착하니 이미 꼴찌였다. 각자 사인을 하고 배정된 방에 들어가 짐을 풀고 5시에 성당으로 모였다.

5시. 피정 책임 신부는, 마태복음 14장, 예수께서 기도하시려고 따로 산에 올라 머물렀다는 말씀을 읽는 것으로 인사를 시작했다. 그리고는 바로 “피정은 물론 침묵으로 이루어집니다. 외적 침묵뿐 아니라 내적 침묵도 중요합니다. 눈인사도 해서는 안됩니다.”라고 했다. 서로 모르는 사람들인데 목적만 그렇게 짧게 시(詩)처럼 설명하고는 바로 수련이 시작되었다.

지도신부 3명, 수녀 14명, 평신도 2명, 그곳 식사준비 등 관계자들 해서 스무 명이 넘는 사람들이 4층짜리 건물을 소유하고 한 달을 함께 생활하는 것이었다. 물론, 신문, 라디오, 컴퓨터, 전화 등도 없다.

그 많은 사람이 침묵으로 모든 생활이 가능하다는 진기한 체험이었다. 식사는 전체 인원이 같이 하고, 또 그룹마다 시간을 달리해서 미사와 강의가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어그럼없이 이루어졌다. 물론 뒷동산 산책도 가능했다. 쪽지에 ‘산?’ 이렇게 써서 보이면, 원하는 사람들이 현관 앞에 모인다. 그러면 한사람이 앞서고 계속 코스대로 따라갔다 돌아온다.

말소리가 없으니 집 전체는 그야말로 조용하다. 그러니 점점 더 모든 동작을 소리나지 않도록 하게 된다. 자기 방문을 여닫을 때에도 소리가 나지 않도록 문고리를 끝까지 돌려야 했다. 고요를 깨지 않기 위해 수저도 그릇에 부딪치지 않도록 주의했다. 나중에는 기침이 나와도 미안한 형편이어서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했다. 걷는 데도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하려니 자연히 품격있는 그림자 걸음이 될 수밖에 없었다. 건물 입구의 풍경, 처마 끝에 떨어지는 빗소리가 저절로 마음으로 젖어드는 시간들이었다.

침묵은 모르는 사람들이 모였는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다른 구성원을 위해 배려를 기울이도록 했다. 누군지 어떤 인생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지만 현재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의 환경과 그 사람을 존중해 주었다. 물론 나도 존중받고 있음을 느꼈다. 산다는 것은 내 앞에 있는 사람의 현재 상황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가장 중요한 일이지 모른다. 침묵 속에 배운 새로운 사랑이었다.

사랑이란 어쩌면 새로운 언어체계에 들어가는 행위인지 모른다. 지금까지 쓰던 단어들이 전혀 다른 의미를 깨닫게 된다. 그리고 그 언어로 대화하고 함께 새로운 세계를 연다. 침묵으로 햇살이 하는 소리를 듣는다. 침묵으로 시냇물이 땅을 부딪치며 내는 외침을 듣는다. 침묵 속에서는 나와 부적응하는 사람들의 소리까지 선명하다. 오관의 모든 언어들이 침묵 속에서 베일을 벗는다. 입으로 발음하면 할수록 사라지는 언어들이다. 헛되이 발음하여 놓치고 싶지 않은 많은 진실들이 있다. 침묵 속에서 그 진실들이 보인다.



김 정 숙 위원
대구중재부
영남대 국사학과 교수



‘비친고죄’ ‘남성강간’ ‘유사강간’, 개정 형법의 세 개의 키워드



양재규 기획팀장

작년 12월 개정된 형법이 6월 19일 시행에 돌입했다. 1953년 9월 제정된 우리나라 형법은 지금까지 몇 차례 개정과정을 거쳤다. 그런데 이번 개정 형법이 유독 세간의 주목을 끄는 이유는 성범죄 관련 친고죄 제도가 전면 폐지되었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유사강간죄 신설, 강간죄 대상이 ‘부녀’에서 ‘사람’으로 바뀐 점도 눈에 띈다. 주요 개정사항을 간략하게 정리해본다.

첫째, 종전 형법에서 성폭력범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제306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친고죄(親告罪)’였다. 이번 개정 형법에서는 이 친고죄 규정이 삭제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특별법에 있는 성범죄 관련 친고죄(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등) 역시 모두 이번 법 개정으로 비친고죄가 되었다.

친고죄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범죄다. 국가형벌권은 개인의 의사에 따라 좌우될 수 없는 공적인 문제지만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는 경우, 친고죄로 두어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형벌권의 실현을 자제해왔다.

이런 정책적 의도와는 달리, 현실에서 친고죄 제도는 피해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이어졌다. 특히, 가해자가 고소 취하를 유도, 형벌을 면하는 수단으로 악용한다는 것이다. 참고로, 고소는 한 번 취하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다.

친고죄 폐지는 기존의 이런 논의를 적극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다만, 애초 성폭력범죄를 친고죄로 두었던 취지는 잘 살려야 할 것이라 본다. 특히, 기사를 통해 많은 범죄사건이 공표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수사관 및 기자들이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신원 보호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둘째, 강간죄 대상에 ‘남성’이 추가됐다. 즉, 종전 형법상 강간죄의 대상은 ‘부녀’였지만 개정법에는 ‘사람’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런 법 개정을 다소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제까지 강간죄는 여성에 대한 남성의 범죄였다. 물론, 강간죄가 신분범죄는 아니니 여성에 대한 다른 여성의 강간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그러나 90% 이상의 강간사건이 남성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강간죄를 ‘여성에 대한 남성의 폭력’으로 보는 관점은 여전히 유효하다고들 말한다.

문제는 예외적으로나마 남성에 대한 강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성전환자들이 그 대표적인 경우다. 여성으로 성전환을 한 남성이 다른 남성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경우, 종전 형법 하에서는 강간죄를 적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 고민해야 했다. 물론, 지난 2009년 대법원은 여성으로 성전환을 한 남성에 대한 강간죄 성립을 인정한 바 있다. 이로써 문제의 일부는 이미 해소되었지만 차제에 입법적으로 관련 논란을 깨끗이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유사강간죄’가 신설되었다. 유사강간이란, 가해자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 이외의 신체 내부에 또는 가해자의 성기 외의 것을 피해자의 성기(항문 포함)에 강제로 삽입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러한 변태행위·유사성행위는 종전 형법에 따르면, 강제추행죄로 처벌되었다. 그런데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간죄(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결국, 유사강간죄의 신설은 이러한 형량의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참고로, 유사강간죄의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결국, 이번 법 개정은 ‘비친고죄’ ‘남성강간’ ‘유사강간’ 세 개 키워드로 요약할 수 있겠고 다시 하나로 요약한다면 ‘처벌 강화’가 되겠다.

햄버거, 그 베어 무는 즐거움에 관하여



김 나 래 총무팀

소고기 패티에 치즈, 야채, 소스, 그리고 빵의 조합. 바로 햄버거다. 나는 앙~ 하고 햄버거를 베어 무는 즐거움에 관하여 이야기 해볼까 한다. 그러기 위해선 앙 베어 물지 못했던 때를 이야기 안 할 수 없다.

몇 년 전 미국에서 교환학생으로 있었던 때의 일이다. 사람 많은 곳에서 누군가에게 떠밀려 앞으로 넘어진 나는 위 앞니 두 개가 부러졌다. 넘어져 다칠 때는 정신이 번쩍 들면서 내가 누구인지, 여기가 어디인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생각했다. 그 건 아드레날린의 작용이었는지도 모르겠다.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았고 피투성이 얼굴로 그대로 바닥에 엎드려 손을 더듬거려 쪼으며 부러진 이빨들을 찾았다. 모든 음식은 또렷한데 정작 고통은 느낄 수 없었으니 참으로 아이러니 했다.

그러나 정작 고통은 그 이후에 찾아왔다. 치료를 위해 부러진 이를 뽑자 그 주변의 이가 내려갔다. 씹을 때마다 내려간 이가 아랫니와 부딪쳐 진통제로도 진정되지 않는 극심한 두통이 찾아왔다. 음식을 씹는다는 게 힘들었다. 매일같이 죽만 먹어야 하는 나날이 계속 되었다.

먹지 못하게 하면 더 먹고 싶다고 했던가. 햄버거 같이 이로 베어 물어야 하는 음식은 먹을 수 없다는 걸 잘 알아서였을까. 야속하게도 햄버거가 정말로 먹고 싶었다. 하는 수 없이 햄버거를 사다 집에서 칼로 잘라 먹기로 하고 룸메이트랑 햄버거를 사 가지고 기숙사로 돌아왔다. 햄버거를 먹으려는데 룸메이트는 내가 햄버거도 베어 물 수 없다고 웃으며 말했다. 가족 같이 친했던 룸메이트는 농담이었지만 당시 나는 그 농담을 웃음으로 받아주지 못했던 것 같다. 햄버거조차 베어 물 수 없는 내 처지가 처량하기 그지 없었기 때문이라.

다치는 것, 혹은 신체 중 어딘가를 상실하는 것은 그런 일이 일어날 당시도 물론 사람을 힘들게 하지만 그 상실로 인해 일상의 사소한 나의 생활이 일그러지는 데 그 진정한 파괴력이 있다. 아스팔트에 얼굴이 처박히는 일은 물론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이지만 그보다 나를 더 힘들게 했던 것은 '다쳐서 나는 이제 이런 것들을 못하는구나'라는 생각이었다. 이런 생각으로 사고가 틀 지워지면 일상생활에서 매번 절망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나는 상실을 통해 애초에 내가 그것을 지니고 있었음을 반대로 확인했던 것 같다. 이빨은 늘상 거기 있었지만 내게 그것이 있음을 스스로 인식하고 살지는 못했다. 이가 부러지고 나서야 나는 햄버거를 베어 무는 행복감이 어떤 것인지 비로소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상실은 내게 주어진 것, 내가 가진 것 전반에 대해 나로 하여금 생각하게 했다. 그리고 감사함을 느끼게 했다.

지금도 햄버거를 먹으면 그 때 일이 생각난다. 앞으로 살면서 다치기 전처럼 아무렇지 않게 햄버거를 베어 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앞으로 어설픈게 앙~ 하고 햄버거를 베어 무는 순간 소소한 행복은 다 치기 전과 달리 매번 나를 찾아올 것이라고 믿고 있다.



아킬레우스를 울린 트로이 왕 프리아모스의 부성애

최효찬
칼럼니스트



서구 문학의 원형으로 꼽히는 호메로스의 ‘일리아스(Ilias)’는 트로이의 성을 의미하는 ‘일리오스(Ilios)’에서 유래한 것으로 ‘일리오스의 이야기’라는 말이다. 여기서 인상적인 장면 가운데 하나가 주인공 아킬레우스가 트로이 왕자 헥토르의 시신을 전차에 매달아 트로이 인들이 보는 앞에서 모욕을 가하는 부분일 게다. 더욱이 헥토르의 아버지이자 트로이 왕 프리아모스가 아들의 시신을 찾으러 단신으로 적군의 진영을 방문하는 장면은 긴박감을 더해준다. 이 대목은 ‘일리아스’를 통틀어 가장 감동적인 장면 중의 하나로 꼽힌다.

아킬레우스는 혈혈단신으로 적진으로 자신을 찾아온 프리아모스 왕을 보고 깜짝 놀랐고 다른 사람들도 놀라서 얼굴만 쳐다보았다. 더욱이 프리아모스 왕은 아들과 같은 아킬레우스에게 무릎을 꿇는다. 이때 당황하는 아킬레우스에게 프리아모스는 이런 말로 애원했다. “신과 같은 아킬레우스여, 그대의 아버지를 생각하십시오! 나와 동년배이며 슬픈 노령의 문턱에 서 있는 그대의 아버지를. 그래도 그분은 그대가 살아 있다는 소식을 들으며 마음 속으로 기뻐하며 날이면 날마다 사랑하는 아들이 트로이에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되기를 고대하고 있을 것이요.”

프리아모스는 아킬레우스에게 고향에서 자식의 무사귀환을 고대하고 있을 ‘아버지’를 거론하며 동정심에 호소한다. 아킬레우스의 아버지는 아들이 살아 돌아올 희망 속에서 아들을 기다리지만 프리아모스 왕 자신은 되레 아들을 죽인 적장을 찾아와 무릎을 꿇고 아들의 시신만이라도 돌려받기를 간구하는 처지라고 말한다. “아킬레우스여! 신을 두려워하고 그대의 아버지를 생각하여 나를 동정하십시오. 나는 세상의 어떤 사람도 차마 못한 짓을 하고 있지 않소! 내 자식들을 죽인 사람의 얼굴에 손을 내밀고 있으니 말이요.” 즉 프리아모스는 아킬레우스의 가슴 속에 아버지를 위해 통곡하고픈 욕망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이런 말을 했던 것이다.

이에 아킬레우스는 그만 고향의 아버지를 생각하고 함께 울고 만다. 프리아모스는 아킬레우스의 발 앞에 쓰러져 헥토르를 위해 꺾이끼이 울었고, 아킬레우스는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때로는 그를 대신해 죽은 친구 파트로클로스를 위해 울었다. 그들의 울음소리가 온 막사 안에 가득 찼다.

여기서 약자의 강자에 대한 ‘간구의 기술’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아킬레우스는 아들을 죽인 적장의 손에 입을 맞춘 프리아모스 왕의 ‘참담한’ 부정(父情)에 연민을 느꼈고 그만 함께 울고 만다. 아킬레우스는 자신의 아버지처럼 노인이 된 프리아모스 왕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고 노인의 흰 머리와 흰 수염을 불쌍히 여겼다. 또한 아킬레우스는 헥토르의 시신을 정성스럽게 수습해서 프리아모스에게 인계해주고 헥토르의 장례가 치러지는 12일 동안 휴전을 선언한다. 적이지만 인간에 대한 예의가 느껴진다. 이게 바로 남을 불쌍히 여기는 착한 마음인 ‘측은지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또한 3천 년 전 호메로스에 의해 묘사된 ‘부성애’의 원형이 담긴 장면들이라고 할 수 있다.

아킬레우스는 그 자신도 요절할 운명을 타고났다. 용맹스러운 영웅 헥토르를 죽인 영웅이지만 그 또한 트로이 성에서 최후를 맞게 된다. 아킬레우스가 아들의 시신을 찾으러 온 프리아모스를 보고 눈물을 함께 흘리고 헥토르의 시신을 정성스럽게 수습해준 것은 어쩌면 자신에게 닥쳐올 미래를 스스로 동정해서가 아닐까. 즉 머지않아 그 자신이 트로이 성에서 최후를 맞게 되면 아들의 시신조차 볼 수 없는 자신의 아버지는 아들의 시신을 찾으러 온 프리아모스보다 더 불쌍하다고 생각한 것은 아닐까.

우리 시대에는 부성애가 설 자리가 없다고 한다. 사춘기가 된 자식들은 아버지와 대화조차 하려 하지 않는다고 아우성이다. 그러나 부성애란 아들의 주검을 찾으러 홀로 적진으로 뛰어드는 그런 것이다. 우리 시대의 모든 아버지 또한 프리아모스의 가슴과 다를 바 없을 것이다. 3천 년 전 호메로스 또한 아버지의 마음이 되어 이 장면을 쓰지 않았을까. 이 여름날, 아버지를 생각하고 부성애를 생각해본다.



CASES

조정중재사례 소개

| 명예훼손 사례 | 창원시가 진해에 건립 예정인 야구장에 대해 정부의 부지 재검토 결정이 있었다는 미확인 보도, 인터뷰 약속으로 조정성립

A신문사는 창원시가 진해에 NC구단의 새 야구장 신축을 강행하려 하고 있으나, 정부가 부지 재검토 결정을 통보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 창원시는 정부가 보낸 공문은 지방재정투자심사 재검토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새 야구장 부지 재검토와 관련된 내용이 없다며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중재부는 피신청인을 설득하여 향후 새 야구장의 건설 진행절차, 특색 및 지향점 등을 담은 신청인의 인터뷰 보도를 게재할 것을 약속해 조정이 성립되었다.

| 초상권 침해 사례 | 봄날 스케치 기사에서 동의없이 초상을 촬영·보도, 각 100만원 배상

B신문사는 봄꽃 축제가 한창인 여의도 윤중로에서 반팔 차림의 상춘객들이 봄날의 정취를 만끽하고 있다는 보도를 하면서, 사진을 찍고 있는 신청인들의 사진을 게재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들은 본인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사진을 촬영·보도하였고, 보도 사진에 부정적이고 모욕적인 댓글이 게재되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피신청인은 동의없이 사진을 촬영, 게재한 것에 대해 심리 중 유감을 표명하였고, 중재부는 각 1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피신청인을 설득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독자마당

언론중재위원회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론  사람]을 읽고 나서 느낀 점 등을 성명, 연락처와 함께 이메일(pac_news@pac.or.kr)로 보내주세요. 의견이 채택된 분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김석현 _ 표지 사진 속 나무와 꽃들이 싱그러워서 산뜻했습니다. 이번 호 기사 중 전 서울법원조정센터장이신 박준서씨의 인터뷰 기사가 유익하고 공감가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박준서씨는 미국, 일본에 비해 한국은 소송 이전에 조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경우가 적고, 한국인들은 여전히 조정보다는 소송을 선호한다고 꼬집어 주셨는데요, 평소 제가 생각해도 한국은 소송과잉이 심한 편이라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소송 이전에 서로간의 조정으로도 원만히 해결하는 공존의 조정문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정이 소송보다 비용면에서나 시간적으로나 이익이 많은데 말이죠. 아마 언론중재위원회를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언론중재위원회를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에 많이 힘써주세요~!!

우도형 _ 6월호 <인문학 산책/ 성공한 남자일수록 '음욕의 눈'을 경계하라>를 읽고 아무리 사회적으로 출세하고 성공했다 하더라도 성문제에 있어 순수하고 깨끗하지 못하면 진정한 성공이 아님을 깨우쳤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인 '빅토르 위고'도 아무리 훌륭하고 뛰어난 작품을 썼다 할지라도 사생활이 그리 깨끗하지 않고 스캔들에 휘말려 결국은 작품의 순수성마저 상실할 소지도 있다고 봅니다. 최근 들어 우리 사회에도 고위공직자들의 잇따른 성추문이나 성접대 등으로 국민들의 원성과 지탄을 받고 있음에 비추어 이들이 더욱 몸가짐을 신중하고 바르게 해야 함을 깨닫게 해 주고 있어 흐뭇합니다. '노블레스 오브리제'를 다시 한번 떠올리며 권력층과 부유층들의 빛나간 음욕과 일그러진 성윤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시점이라 여겨집니다.

강창규 _ 소송의 문화 대신 공존의 조정문화가 필요하다는 박준서 전 서울법원조정센터장의 인터뷰 잘 보았습니다. 최근 들어 고소, 고발이 빗발치고 있는 언론계에 자칫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에도 받아들여지네요. 역으로 이를 빙자해 무차별한 허위사실 유포와 타인의 명예훼손을 일삼는 일부 누리꾼들에게도 자정의 노력이 필요함을 잘 역설해 준 글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이제 조정중재도 인터넷으로, 언론중재Eye-Net 서비스!!

언론중재Eye-Net 이란?

- 언론중재Eye-Net은 전자적으로 조정중재를 신청하고 심리절차를 진행하는 전산정보시스템입니다.
- 위원회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상담, 조정중재신청, 심리준비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으셨다면 언론중재Eye-Net을 찾아주세요.

언론중재Eye-Net 이용안내

1. 전자제출 _ 위원회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고, 진행 중 각종 서류를 쉽고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전자민원 _ 묻고 답하기와 1:1 실시간 상담이 가능하며, 각종 서식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3. 전자송달 확인 _ 위원회에서 전자송달한 각종 통지서, 조정조서, 결정문 등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나의 전자심리 _ 나의 사건 진행내역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열람이 가능하고, 진행 중 사건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론중재Eye-Net <http://people.pac.or.kr>

언론중재
Eye-Net 서비스



언론중재위원회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하세요

언론중재위원회는 학생들이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에 대한 법적 소양을 함양하고, 소송 이외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체험을 통한 합리적 분쟁해결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방학 중에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내용

-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에 대한 이해
- 언론분쟁 사례 소개
- ADR 제도에 대한 이해 및 ADR 체험
- 언론중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소개
- 위원회 심리실, 언론사 등 견학

프로그램 운영

- 대상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 기간 : 여름방학 기간
- 시간 : 3~4시간
- 장소 : 위원회 강의실
- 비용 : 무료
- 신청방법 : 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문의 : 수시교육팀 (02-397-3062~3064)

※ 프로그램 내용은 선별적으로 실시될 수 있으며,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에게는 이수증을 수여합니다.



국민과 언론을 이어주는—
언론중재위원회

• 언론피해상담 02)397-3000 • 이메일상담 counsel@pac.or.kr • 온라인상담 <http://people.pac.or.kr>
• 선거기사심의위원회 TEL 02)397-3151~4
■ 이 광고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